

광주시민협 “한전공대는 600만 호남 미래가 걸린 일”

2022년 3월 정상 개교 촉구 성명서 발표

“고사 위기 처한 지역경제 살리는 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한전공대 설립은 600만 호남권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민단체협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한전공대 설립은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를 지키는 것으로 수도

권 일극화의 망국병을 치유하고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지방과 수도권, 호남과 영남의 경제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때까지 지방과 호남의 경제 발전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전공대 설립에 제

동을 거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치권은 한전공대 설립 추진에 정파적 이해득실과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일을 해서는 범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한전공대 설립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건립 시기를 지연하는 등의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된

다”며 “당초 공약대로 추진해 2022년 3월에 정상 개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광주·전남 시민사회도 한전공대의 성공적 설립을 위해 역할과 기능을 다 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범시민 추진기구 등이 성사되도록 최

대한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광주전남민주연대시민연합, 광주경실련 등 광주지역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지난 1998년 출범했으며, 지역현안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안 제시, 시민리더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개혁과제 실천 등 역할을 하고 있다.

조인호 기자



1억2천만 송이 꽃의 향연에 탄성 절로 '2019 화순 국화향연'이 펼쳐지고 있는 화순군 화순읍 남산공원이 1억2천만 송이 꽃의 향연을 즐기려는 나들이객으로 북적였다.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개막식을 포함해 주말까지 3일 동안 15만 명이 국화향연을 찾았다. 화순 국화향연은 11월 10일까지 열린다.

무안군, 아열대 작물 적극 육성한다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 ... 파파야농가 현장방문으로 소통행정 정보

무안군이 미래농업을 견인할 아열대 작물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지난 23일 아열대 작물 재배 선도 농가를 격려하고,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농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관내 파파야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한 농가는 풍탄면 구산리 양성승 씨 농가로 올해 무안에서 최초로 파파야를 재배한 농가다.

양성승 씨는 배우자가 동남아 출신으로 자연스럽게 아열대 작물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재배 및 판매방법, 경쟁력을 확인해 무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아열대작물 발굴 시범 사업'에서 시설하우스 1,000㎡, 관수시설 및 난방 시설,



묘목 구입을 지원받아 파파야 재배를 시작하였다.

농가는 파파야 외에도 차오레, 링닌, 오크라 등 여러 아열대 과채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한 작물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외국인 노동자 및 이주여성들에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아열대작물이 고소득 틈새 소득 작물로 농가소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면서 “미래농업을 견인하는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광산구의회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하라”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 채택

광주시 광산구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골자로 하는 '군용비행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27일 밝혔다.

국강현 의원은 “2013년 4월 5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오랜 숙원 사업인 군 공항 이전 길이 열렸지만 6년간 답보 상태”라며 “군용 비행

장 이전 합의 없는 민간공항 이전 논의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결의안은 “광주 민간공항과 군 공항을 통합 이전한다는 광주시의 입장과 달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군 공항 전남 이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고 광주무안 민간공항 통합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업무협약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군 공항 이전의 핵심주체를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도록 명시, 열악한 지방정부의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군 공항이 하루빨리 이전되도록 노력하라”고 말했다.

국 의원은 “군 공항 및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대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이번 결의안 내용을 함께 제출 것”을 당부했다.

임형택 기자

장흥군, 청소년안전망 체계적 구축 노력

지난 24일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청소년 안전망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위기 청소년 및 학대 의심 청소년

의 발견, 보호, 치료에 협력하기로 했다.

상담복지센터는 관내 학대피해 아동 및 청소년과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때 지원하기로 했다.

장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30여개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을 통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지원을 연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 지원,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취업, 지원, 특성화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제18회

별교포막 & 문학축제

2019. 10.31. 목 → 11.3. 일

별교읍 천변 일원 & 태백산맥 문학관

부대행사

- 교막무료이벤트
- 황금교막을 잡아라
- 바퀴달린 날배타기 대회

<작가 '조정래' '선생과 함께하는...>

- 소설 '태백산맥' 주무대 투어
- 소설 '태백산맥' 인문학 콘서트
- 작가 '조정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발대식

부대행사

축제 문의 | 061)857-7676